

## 『風謠續選』에 나타난 민중적 삶의 형상화

成 範 重

- I. 머리말
- II. 위항인의 자기인식 문제
- III. 당대 사회의 병폐적 현상
- IV. 당대 하층민 질곡의 형상화
- V. 맺음말

### I. 머리말

委巷文學(또는 閭巷文學)은 中人層을 중심으로 해서 17세기 이래 19세기까지 전개되었던 한문학을 지칭한다. 이것은 具滋均 선생의 『朝鮮平民文學史』(1948) 이래 한동안 논의가 없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연구되어 온 분야로서, 그 사이에 상당한 양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그 결과 위항문학의 성격, 중요 작가들의 문학세계, 그들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詩社, 그들의 전기집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위항문학의 전반적인 문제는 대개 밝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풍요속선』에 나타난 민중적 삶의 형상화에 대한 문제도 특별히 새로운 그 무엇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다루어진 위항문학의 성격을 그들의 시선집의 하나인 『풍요속선』을 통해 재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sup>1)</sup>

여기서 『풍요속선』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 문집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시선집을 택한 이유부터 밝히는 게 순서일 것 같다. 그것은 곧 시선집을 고찰의 대상으로 선택할 경우 한 개인의 특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데에는 불리하겠으나 중인 또는 위항인 전체의 특성을

1) 이 글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는 任侑旻, “18세기 委巷詩集에 나타난 中人層의 文學世界”(泰東古典研究 창간호, 泰東古典研究所, 1984)가 있다. 여기에서는 『昭代風謠』와 『풍요속선』의 시세계를 ‘현실 또는 자신에 대한 감회를 적은 시’, ‘회고시 및 기행시’, ‘다양한 감정의 표현’이라는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드러내는 데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었고, 어차피 위항문인들이 개인적인 면에서는 사대부문인들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서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개별작가를 다루는 것보다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루는 것이 보다 온당하고 그 전체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때, 위항문학의 전반적 속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들의 대표적 시선집이라 할 『소대풍요』(1737), 『풍요속선』(1797), 『풍요삼선』(1857)을 다 살피는 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일 수 있으나 그것은 양적 방대함과 아울러 시간적으로 200년에 걸치는 장기간의 작품이 망라되어 있음으로 해서 한 시기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살펴 그 특징적인 면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고, 또 하나는 이 세 시집 중 시기상으로 중간에 위치함으로 해서 앞 뒤의 시선집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이시집을 편찬한 千壽慶(1757-1818)과 張混(1759-1828)이 위항문학의 전성기를 구가했다고 하는 松石園詩社를 이끈 두 주역이었으며, 그들의 시적 감식안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따라서, 『풍요속선』의 시들을 대상으로 위항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인식하였으며, 이 자기인식의 바탕 위에서 어떻게 당대인의 삶의 터전인 사회의 부조리를 파악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위항인의 눈에 비친 당대 민중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를 살펴, 위항문학의 지향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II. 위항인의 자기인식 문제

특정한 개인 문집이 아닌 특수한 계층의 집단적인 문학작품이 집대성된 『풍요속선』과 같은 시선집의 경우, 그들의 집단적 문학활동 및 문학세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하는 것을 문학 작품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측면을 살펴보는 데에는 작품을 통해서보다 다른 직접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그것은 문학외적인 요소를 통한 것일 뿐 작품세계의 연구라는 면에서

는 오히려 주변적인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작품세계의 이해 및 연구라는 점에서 우회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으나, 작품 속에 구현된 세계를 통해 위항인들이 스스로를 인식한 결과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기에도 일견 두 가지 층위의 인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그것이 온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정될 수 있는 자기인식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집단적인 차원의 인식 곧 중인이라는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자기인식의 문제인 것이다. 물론 이 두 차원의 인식이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보족적으로 의식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그러한 의식이 분명하게 갈라서 이야기되기 어려운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들을 엄밀히 나누지 않고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영위했기 때문에 인간 보편의 차원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양반이나 상민들과 다름없이 사고하고 고민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의식보다는 그들 나름의 특수한 위치에서 의식되고 인식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실의 차원에서 위항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작품 속에 구현되고 있는 위항인들의 삶의 수준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들의 시 속에는 이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등장함이 일견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전략) 病憐春物渾生氣 病 중이라 봄 물건들이 온통 생기를 띠움을 안타까이  
여기고

窮愧新詩有怨辭 가난하다 해서 새로 지은 시에 怨辭가 있음을 부끄러워한다.

夙昔粗聞君子教 예전에 거칠게나마 군자의 가르침을 들었으니

詎隨流俗競刀錐 어찌 흘러가는 풍속을 따라 조그마한 땅을 다룰까보나.

(池宗魯, [早春], 續選 권6, p. 709.)<sup>2)</sup>

2) 앞으로 『풍요속선』에 실린 작품을 인용할 때는 이와같이 표시함. 이것은 『風謠續選』(昭代風謠·風謠續選, 亞細亞文化社, 1980), 권6, p. 709를 나타낸다.

시인 스스로 언급하듯이 시 속에 '가난하다 해서 새로 지은 시에 怨辭가 있음을 부끄러워 하' 면서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군자'를 자처하는 처지에서 시속의 조그마한 이익을 다룰 수는 없다는 마음의 자세를 표명하고 있다. 물론 이 때는 이미 서울의 분위기는 도시적 생활양식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니<sup>3)</sup> 이들의 삶의 방식은 시류에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은 의식의 차원에서는 군자의 삶이었다고 할 것이다.

一生治産計何疎 한평생 治産하면서도 계획이 얼마나 疎闊한지  
 平日家無甌石餘 평일에 집에는 항아리 남짓의 곡식도 없네.  
 卜宅只知尋僻巷 집을 정할 때 그저 궁벽진 거리를 찾았음만 알고  
 得錢唯解買奇書 돈이 생기면 오직 기이한 서적을 살 뿐이네.  
 園間有地忘栽樹 들에는 땅 있어도 나무심기를 잊었고  
 籬下成潭不種魚 울타리 아래 못을 이루어도 물고기 기르지 않네.  
 自笑暮年愁桂玉 늘그막에 양식 걱정함을 스스로 비웃나니  
 腹中無賴貯連車 수레를 이을 정도의 독서가 굶주린 뱃속에 힘이 되지 못하네.  
 (崔景燮, [自笑], 續選 권4, p. 556.)

여기에서 보듯 그들 스스로 삶의 방식 자체가 疎闊함을 의식하고 있으면서 군자적 삶에 바탕한 독서가 그들의 가난을 구제해 주지 못함을 自笑하고 있다. 이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결국 다음과 같이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그것을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주기도 한다.

(a) (전략) 留客以詩君有酒 시로써 손님을 머물게 함은 그대에게 술이 있음이요,  
 見人之侮我無錢 남의 모욕받음은 내게 돈이 없는 까닭이네.  
 如斯居世如斯死 이같이 살다 이같이 죽으리니  
 早識榮枯本在天 榮枯盛衰가 본래 하늘에 있음을 일찌감치 안 것을.  
 (金瀾, [夜酌與聖潤用東坡韻], 續選 권4, pp. 545f.)

3) 李佑成, "18世紀 서울의 都市的 樣相", 한국의 역사상(창작과 비평사, 1983).

- (b) 舒膝寧無地      무릎펼칠 땅이 어찌 없으랴.  
 擡頭剩得天      머리를 드니 하늘을 얻었네.  
 躬耕從古事      직접 밭갈이함은 옛날부터의 일이니  
 何恨老林泉      林泉에 늙으감을 어찌 恨歎하랴.  
 (李胤昌, [閒居], 續選 권5, pp. 614f.)

- (c) (진략) 老翁不識塵間事      늙은이가 세속의 일을 모르면서  
 長對青山到白頭      길이 푸른 산을 대하다보니 흰 머리가 되었네.  
 (金致夏, [訪山家], 續選 권5, p. 614)

- (d) 門前綠水淨如紗      문앞의 푸른 물은 맑기가 비단같고  
 一徑綠溪直又斜      한 줄기 푸른 시내 곧다가 굽어지네.  
 栗里田園元亮宅      栗里的 田園은 陶淵明이 살던 곳이요,  
 柴門琴瑟杜陵家      사립문과 琴瑟은 杜陵布衣(杜甫)의 집이로다.  
 清羸篋裏頻尋藥      맑게 가득찬 광주리에서 자주 약을 찾다보니  
 消息山中已落花      전해지는 소식은 산중에 이미 꽃 떨어졌다 하네.  
 物外逍遙直自適      物外에 逍遙함은 곧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니  
 夢魂無復到京華      꿈 속의 魂이라도 다시는 京華에 이르는 일이 없네.  
 (朴泰郁, [郊居], 續選 권3, p. 513.)

위의 시 a는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 남으로부터 모욕을 받는 시적 자아의 처지를 표명한 뒤 그것을 운명론적으로 수용하는 일종의 자포자기적 자세를, b는 그런 자세에 바탕해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c, d는 의식적으로 세속적인 제반 문제를 외면하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온 시인의 삶의 모습이 그려지고, 복잡다기한 삶의 터전인 서울에는 발걸음을 끊고 살아온 위항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것들을 통해 드러나는 그들의 의식의 지향은 자명하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도권의 편입을 거부하고 자신의 본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 바탕에 國制에 의해 한정된 그들의 신분적 한계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下第嗟華髮	과거에 낙방하고 흰 머리를 탄식하노니
田園計已非	전원의 계획은 이미 글러버렸네.
親朋一以隔	親朋은 하나같이 멀어졌는데
旅雁竟何歸	날아가는 기러기 마침내 어디로 가랴.
蒲雨冥還墜	부들에 내리는 비는 어둑했다 떨어지고
微霜颯欲飛	회미한 서리는 시원하게 날고자 하네.
十年半行李	십년 동안 반은 여행짐을 꾸렸으니
九月又寒衣	9월에 또 겨울옷을 입네.

(安明欽, [下第], 續選 권6, p.710.)

과거에 낙방하고 쓴 시이다. 직접적으로 과거제도의 병폐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그것이 위항인들에 큰 질곡으로 작용한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이들보다 한 세대 늦은 사람으로서 시라면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秋齋 趙秀三(1762-1849)이 83세에 司馬試에 합격하고 쓴 자조적인 시는 그들이 과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sup>4)</sup>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라고 하겠으나 『풍요속선』에도 이같이 國制에 의해 느끼는 좌절감을 언표하고 있는 예는 많다.

世棄吾仍棄	세상이 나를 버려 나도 세상을 버렸으니
歸來也不妨	시골로 돌아간다 해서 방해받을 일 없네.
清泉園作井	맑은 샘을 둘러싸서 우물을 삼고
遠岫列爲牆	멀리 있는 산바위를 벌러놓아 담장을 삼았네.
柳暗柴門碧	버드나무 어둑하니 사립문은 푸르고
花明小屋香	꽃 밝으니 작은 집이 향기롭네.
紅塵消息斷	티끌 세상의 소식이 끊어지니
憂樂兩相忘	근심과 즐거움 모두를 잊어버렸네.

(庾必遠, [鄉居卽事], 續選 권5, p.643.)

4) 趙秀三은 [司馬放榜日口呼七步詩二首](秋齋集 권6, 詩)에서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백속에 든 시가 몇백 집인가. 금년에야 비로소 난삼을 걸친다. 사람들이 내 나이 얼마인지는 묻지를 마소. 60년 전에는 23살이었다오.”(腹裏詩書幾百擔 今年方得一欄衫 傍人莫問年多少 六十年前二十三, 第1首)

(전략) 吾儕天放久      우리들은 하늘이 추방한 지 오래이니  
 末路任崎嶇      末路에 기구함을 당한다네.  
 (鄭惟泰, [春夜卽事], 續選 권5, p. 651.)

여기에서 보듯,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버림받은 처지 또는 하늘로부터 추방된 처지로 파악하여 조선사회 내에서 용납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일종의 자포자기적 심적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경제적 인 차원의 불평등 이전에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의식의 저변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의 타개책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일종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곧 현실적인 사회개혁이나 제도개혁을 통한 자기들의 입지를 확보하지 못할 바에야 의식의 차원에서나마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투영된 작품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人生誰百歲	인생에 누가 백년을 살리오.
百歲也無多	백년이라 해도 많은 것 아니라네.
不可爲形役	마음은 육신에 부림당할 수 없나니
惟宜任醉歌	오직 마땅히 醉時歌를 부르네.
樓臺皆逆旅	樓臺는 모두 逆旅요
車馬亦風波	車馬 또한 風波로다.
却羨頭陀子	도리어 부러워하느니, 頭陀자가
無心兩手叉	무심히 두 손을 교차하고 있음이로세.

(劉聖錫, [酒後], 續選 권3, p. 498.)

朝馳平樂觀	아침에 平樂觀으로 달려갔다가
夕趨承明廬	저녁에 承明廬를 쫓아가네.
顧眎生光輝	돌아보니 광채가 휘황하나
觀者塞中衢	보는 이는 길 가운데를 막아버리네.
世俗棄貧賤	세속에서 빈천함을 버리니

誰念寒士居	누가 한미한 선비의 거처를 생각해주랴.
出門無所適	문을 나서도 갈 곳이 없으니
下簾讀床書	주렴을 내리고 책상의 글을 읽네.
書中何所有	글 속에 무엇이 있는가.
軒義與唐虞	軒轅·伏羲氏와 帝堯 陶唐氏와 帝舜 有虞氏로다.
掩卷發長吁	책을 덮고 긴 탄식을 발하노니
此道今焉知	이 도리를 지금에 어찌 알 수 있으랴.

(金弘敍, [感懷], 續選 권5, p. 596.)

이러한 방식이 기본적으로 실천적인 행동을 수반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의식의 측면에서는 현실적 질곡을 극복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앞의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樓臺, 車馬와 같은 것들을 부질없는 것으로 파악하여 그런 것을 초월한 삶을 영위하는 스님의 처지를 부러워하는 것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뒤의 시에서는 과거에의 회귀를 통해 현실적 시름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형성된 자포자기성 인식 곧, “塵間의 명리를 통발이나 올라미같은 수단적인 것으로 보고, 窮通의 가름이 사람의 賢愚에 있지 않다”<sup>5)</sup>는 생각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군자이고자 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문학활동 그 자체가 구원의 길이 되지만도 못했다. 그들이 선택했던 문학행위조차도 현실적 한계를 인식한 차원 위에서 설정된 하나의 길이였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張混(1759-1828)이 말한 바, 德行·勳業·文章·經術이라는 인간이 태어나 명성을 취할 수 있는 네 가지 요목 중에서<sup>6)</sup> 덕행과 훈업은 사실상 위항 인물로서는 불가능하고, 趙熙龍이 말한 바, 經術·勳業·言行·詩文 중 경술과 훈업은 위항인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sup>7)</sup>을 들지 않더라도 교육과 신분문제에서 사대부들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서 택할 수 있었던 길은 이미 정해져 있

5) “身是鯨魚意老禪 塵間名利視蹄筌 卜隣幸有三椽屋 負郭曾無二頃田 得失縱然隨巧拙 窮通判不在愚賢 浮生半世頭將白 萬事 駸駸五十年”(金舜欽, [述懷], 續選 권4, p. 563.)

6) 張混, [庭下至訓序](而已'集 권2).

7) 趙熙龍, [里鄉見聞錄序](劉在建면, 里鄉見聞錄).



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런 와중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문학활동이었으니 그 문학을 통해서나마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려하고 또 후세에 전하려고 한 그들의 노력은 일견 피눈물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오늘날 전해지는 위항인들의 시선집이 편집되고 간행되었던 것이다. 그나마도 그들이 평상시에 의식하고 있었던 사회의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면을 직설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단편적인 감상이나 당대 일상인의 모습을 담고 있음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략) 文字生前堪自適 文學은 생전에 스스로 즐거움을 기꺼워하고  
事功身後不須銘 事功은 사후에 반드시 이름 새겨지기를 바라지 않네. (후략)  
(洪禹弼, [夕臥], 續選 권2, p. 453.)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문학에 대한 의식이 어쩌면 그들의 문학에 대한, 그리고 勳業에 대한 생각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기까지 하는 것은 그들이 선택한 문학활동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千壽慶이 옥계의 물가에 집을 짓고 위항문인들의 맹주가 되어 松石園詩社를 결성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香社라는 詩社를 결성해 활동하다 그 모임에 참석해 격려하는 시를 지은 嚴啓興<sup>8)</sup>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그들의 시사활동 곧 文學之交를 내세운 그들의 문학활동의 한 모습을 엿보게 해 주는 것이다.

(전략) 窮達自有命 窮達에는 타고난 운명이 있나니  
棄置復奚疑 버려진다 해서 다시 무엇을 의심하라.  
達亦不足喜 현달한다 해서 기뻐할 것도 아니요,  
窮亦不足悲 빈궁하다 해서 슬퍼할 일도 아니다.  
爲問賴下駒 끝채 밀의 망아지에게 묻노니  
期似泥中龜 기약은 마치 진흙 속의 거북이 같네.  
但願無束縛 다만 바라기는 속박 없는 것이니  
昕夕心委蛇 새벽부터 저녁까지 마음은 온화하고 조용하다.

8) 참고, "19세기 前半期 委巷詩社活動과 委巷文學의 한 特徵", 울산어문논집 4(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2), pp. 102f.) 참조.

晤言尊罍間 술잔 앞에 두고 마주앉아 이야기하며

傲兀以揚眉 오만히 눈썹을 들어올리네. (후략)

(嚴啓興, [千君善壽慶玉洞卜築癸丑暮春盛邀諸子修蘭亭故事强策赴會],  
續選 권6, pp. 669f.)

현실 속에서 느끼는 소외된 감정을 함께 모여서 시를 읊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풀어보자는 소박한 의도에서 시사활동을 시작하였고 또 그것이 그렇게 지속되기를 회구하는 마음이 평담한 언사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나 현실 속의 문제를 소박한 언사로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 시사활동의 소박한 뜻이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의 시에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일상적 차원의 문제를 형상화하는 데 머물지만은 않았다. 비록 시에서 다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대 사회문제에 대한 그들의 뜻은 시를 통해서 형상화되었고 또 시를 통해 그들의 암울한 심정을 발산하였다.

古今紛紜何日了 古今의 어지러움이 어느 날이나 끝날까.

乾坤遼闊此途窮 乾坤은 아득하고 넓은데 이 길은 다했구나.

家貧不恤還憂國 집의 가난을 救恤치도 못하면서 도리어 나라를 근심하니

自笑愚衷漆室同 어리석은 충정이 漆室之女와 같음을 스스로 비웃는다네.

(高時彦, [月夜], 續選 권4, pp. 371f.)

(전략) 未能才濟世 재주는 세상을 구제할 수 없고

姑且力耕田 그래서 힘써 밭을 간다네.

萬事休經意 만사에 쉬려는 마음으로

和湛過暮年 和湛하게 모년을 보낸다네.

(李弘載, [喜舍弟自燕京還], 續選 권7, pp. 759f.)

비록 제도상으로는 버림받은 처지이지만 뜻은 높아 처지에 맞지 않게 국가를 근심할 수밖에 없고, 재주를 스스로 알아(비록 國制에 의해 조정에서 큰 일을 담당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침거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자인한다는 논

조를 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대국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민족의 현실에 대해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같은 복합심리가 종합적으로 개진되고 있는 시가 바로 다음의 시가 아닌가 한다.

屛跡南溪世與疎 남쪽 개울이 발차취 막아 세상과 소원하고  
 欲將悲喜竝歸虛 회비의 감정 모두 가지고 함께 텅빔 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네.  
 光陰北去南來雁 세월은 남북을 왕래하는 기러기요,  
 豐悴朝三暮四狙 豊悴는 朝三暮四의 원숭이로다.  
 春在中心常澹澹 봄에는 마음 속이 늘 담담하더니  
 夢回太古自薿薿 꿈을 깨고나니 태고시대는 스스로 우뚝하도다.  
 ●寒衣飢食任眞率 추위와 옷, 굶주림과 음식은 眞率함에 맡기나니  
 焉用文詞著滿車 수레에 가득한 文詞 무엇에 쓰랴.  
 (朴蔓, [自遣], 續選 권7, pp. 779f.)

현실적으로 세상에 나아가 經國濟民의 뜻을 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혀 외면할 수만도 없는 세상살이에서 삶의 진솔함만을 믿을 수도, 文詞 속에 탐닉할 수만도 없어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실체로서의 위항인의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곧 위항인들이 당대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파악한 스스로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 III. 당대 사회의 병폐적 현상

『풍요속선』에서 위항시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당대 사회의 병폐적인 현상은 물론 한두 가지로 설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마는 그 핵심적인 문제 파악의 갈래는 대개 일정하다고 하겠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빈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위항인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대 사회의 전반적 문제였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편들 또한 적지 않다.

冬何苦寒夏何熱 겨울은 어찌 지독히 춥고 여름은 어찌 그리 더운지

才薄未得窮玄機 재주가 박해서 오묘한 이치를 다 알 수가 없네.  
 貧人畏寒不畏暑 가난한 사람은 추위가 무섭지 더위는 무섭지 않아  
 燻日猶足一葛衣 뜨거운 해도 갈옷 하나로 족하다네.  
 富人畏暑不畏寒 부자는 더위가 무섭지 추위는 무섭지 않아  
 積雪正合千金裘 쌓인 눈에는 천금 가죽옷이 어울린다네.  
 仁政須先哀癯獨 어진 정사는 외로운 사람들을 먼저 살피야 하나니  
 九重何以達冕旒 구중궁궐 임금님께 어이 아리랴.

(石世珩, [苦寒行], 續選 권3, pp. 483f.)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대립시켜 특정한 한 면모를 부각시키면서 애초에는 가치문제를 배제하는 듯이 보이지만, 尾聯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지향점을 내보임으로써 궁극적인 지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 시가 당위적인 면에 초점이 놓였다면 다음의 시는 현실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좀더 구체적인 면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

昔我有金酒 옛날 나에게 돈과 술이 있을 때는  
 不親親知來相親 不親한 親知도 와서 서로 친했는데,  
 今我無金酒 지금 나에게 돈과 술이 없으니  
 相親親知來不頻 서로 친했던 親知도 오는 것이 드물구나.  
 最愛樑上燕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들보 위의 제비이니  
 年年相訪不嫌貧 해마다 서로 찾으면서도 가난함을 싫어하지 않네.  
 寄語世間輕薄子 世間の 輕薄子들에게 말하노니  
 慎莫爲一朝無情人 삼가건대 하루 아침에 無情한 사람이 되지는 말게나.

(金喜重, [題醉醒窩效古體], 續選 권6, p. 689)

빈부의 문제를 세상의 인심과 관련시켜서 파악하고 있다.<sup>9)</sup> 친지 사이에 있어서도 재산의 유무에 따라 親疎關係가 결정되는 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감회를, 동물들의 항상성을 지닌 세계와 대비시켜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같은 현상은 당시의 사회가 이미 배금주의적 가치관에 깊이 침윤되어 있음을 바탕

) 변하는 俗情에 대해서는 安光濂도 [偶吟](續選 권4, p. 581)에서 비판하고 있다.

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따라서 화폐가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으로 등장함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시가 쓰여지기도 했다.

人間獨步孔方兄 人間세상에 孔方兄(돈, 엽전)이 독보하여  
意氣文章秋葉輕 意氣 文章은 가랑잎처럼 가볍구나.  
吾與此君交已絕 나는 이것과 인연을 끊은 지 오래니  
出門孤笑白雲橫 문을 나서면 흰 구름이 빗긴 것을 보고 홀로 웃나니.  
(劉昌漢, [有感], 續選 권2, pp. 431f.)

온세상의 사람들이 이문을 추구하느라 인간적인 도리를 도외시하는 세대에 대한 비판이다. 車佐一(1753-1809)이 지적한 바, '길가는 행인을 잡고 무엇 하러 가느냐고 물으면 리를 추구함이 아니면 명승을 찾는다'고 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말이다.<sup>10)</sup> 이런 점에서 安尙德은 특히 市朝에서의 쟁탈을 문제삼아 그러한 세대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자손들을 전원 속에서 성장하게 하여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sup>11)</sup>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깔고 볼 때 다음의 시는 빈부 귀천에 대한 위항인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聞古仁無敵 옛날 仁은 無敵이라 들었는데  
看今義亦嗤 지금 보니 義 또한 웃음거리로다.  
富榮貪益顯 부유하고 영화로움은 더욱 천달함을 탐하고,  
貧賤是爲非 가난하고 천함은 그릇됨이 되네.  
天意豈能度 하늘의 뜻을 어찌 헤아리리오 마는  
人情未易知 사람의 뜻도 알기 어려우네.  
山深水綠處 산 깊고 물 맑은 곳으로  
早晚不如歸 조만간 돌아감이 좋겠네.  
(田萬種, [自歎], 續選 권3, p. 506)

10) “道上多行人 東西各自去 問君何爾爲 非利卽名處”(車佐一, [出山], 四名子詩集).

11) “(전략)從古市朝爭奪惡 不如此地長兒孫”(安尙德, [晚到江樓], 續選 권5, p. 629).

힘난한 세상의 추이를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온전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일종의 希願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이다.

이상의 것들이 화폐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인식되는 당대 사회의 빈부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위항인들의 의식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는 시들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보여줄 시들은 농민들의 삶에 대해 느끼는 의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逐末多遊食	逐末(商賈)들은 遊食함이 많은데
農夫獨可憐	농부들은 유독 가련하구나.
織耕愁凍餒	베짜고 밭갈면서도 춥고 굶주림을 근심하고
豐稔有顛連	豐稔에도 어려움이 겹치네.
地廢猶徵稅	토지를 폐지해도 오히려 세금을 걷고
身亡尙索錢	몸은 죽어도 여전히 돈은 거두네.
誰能如在己	누가 능히 자기의 일처럼
一聞九重天	구중심처의 임금께 아뢰어 주리.

(崔亮衍, [歎農], 續選 권2, p.416).

商人들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는 하층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시다. 농민들은 풍흉에 상관없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더해서 地稅와 白骨徵布로 인한 폐해까지 겹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三政의 문란으로 인한 농촌의 피폐상과 농민의 流民化 현상은 이 시기 사회문제 중 가장 첨예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그 실상은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성격의 문제이지만<sup>2)</sup>, 이것은 농민의 참상이기 이전에 조선후기 사회전체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항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 시에서 그치지 않는다.

左海雖褊地數千 左海가 비록 좁다지만 땅이 수천리인데,  
殷師八教措無傳 殷師 八教가 애석히도 전하지 않네.  
春花自發逃亡屋 봄꽃은 스스로 피었으나 逃亡한 집들이요,

2) 이 문제를 다룬 시는 다음 제IV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雨水偏多祿位田 빗물은 祿位田에만 흘러드누나,  
 黃白徵錢聽不忍 黃口簽丁과 白骨徵布 이야기는 차마 못듣겠고  
 良私混役說堪憐 양인과 私賤의 混役은 말로 드러내기 어렵네,  
 軒皇并野今如掃 黃帝 軒轅氏 내신 井田의 법을 지금 쓸어 버린다면  
 漢約唐條摠拘攣 漢, 唐의 約條는 모두 묶여 버리는 게지,  
 (白胤耆, [左海], 續選 권4, p. 550)

앞의 시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통해 기자의 가르침이 온존해 온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은 유리걸식하고 祿位田이 넘쳐나는 현상을 지적한 후, 군정의 문란과 부역의 폐해를 지목하여 이것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타개할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의 소재가 간단치 않음을 뜻한다. 이것은 당대 사회의 주류적인 입장에서 서 있지도 못한 위항인들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실학자들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현안이었고 그들 역시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다. 그래서 위항인들은 그저 복고적인 역사적 사실에 기대어 자신의 심정을 피력하는 데 머물고 말았던 것이다.

#### IV. 당대 하층민 질곡의 형상화

이 장에서 다룬 내용은 당대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 곧 하층민의 고통을 대신 드러내거나 아니면 사회의 제반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나름의 비판의식을 담고 있는 시들이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선후기의 실학자들의 사회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시들이나 관료적 문인들 중에서도 사회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과 같은 차원에서 있는 것으로 상호변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것들이다. 이 점은 물론 의미있는 비판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 항목 자체가 타인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인간 보편의 차원에서 인식되는 문제의 시적 형상화라는 성격을 지님으로 인해 외적 형식은 비슷해 질 수밖에 없는 전체를 바탕에 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 양상을 보면, 우선 특정한 개인의 비참한 사연을 시의 주요 모티브로 하여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다.

- a. 朔風蕭瑟塞日落 삭풍은 소슬하고 변방에 해 떨어지는데  
 孤村有女呼天哭 외로운 마을에 한 아낙네 하늘 부르며 통곡하네.  
 牛山歸客不堪聽 牛山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차마 듣고 견디기 어려워  
 駐馬欲問心悽惻 말 세우고 사연 묻자니 마음이 슬프고 애답구나.
- b. 自言丈夫前年死 스스로 말하길, “남편은 지난 해 죽었으나  
 夫死幸有兒遺腹 다행히도 아이가 배 속에 유복자로 남았답니다.  
 生男毛髮尙未燥 아들 낳아 머리털이 마르기도 전에  
 里任報官充軍額 里任은 관청에 알려 軍額에 올렸답니다.  
 襦褌兒付壯丁案 강보에 싸인 애를 壯丁案에 올려놓고는  
 旋復踵門身布督 발걸 돌려 다시 문에 와서 身布를 독촉했지요.  
 昨日抱兒詣官點 어제는 애를 안고 관청에 점검차 갔었는데  
 天寒路遠風雪虐 날은 춥고 길은 먼데 눈바람은 가혹하여  
 歸來兒已病且死 돌아오니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으니  
 肝腸欲裂胸臆塞 간장은 찢어질 듯. 억장이 막혔습니다.  
 深冤入骨訴無地 깊은 원한이 뼈에 사무쳐도 하소연할 곳 없으니  
 窮窘寧不呼天哭 궁하고 군색함에 어찌 하늘 부르며 통곡하지 않으리요.
- c. 爾婦此言眞可哀 아낙네의 이 말이 참으로 슬퍼  
 余一聞之長太息 나는 한번 듣고 크게 탄식하노라.  
 先王制民德爲先 옛 임금이 백성을 裁治함에 德을 우선하였으니  
 匹夫匹婦無不獲 匹夫匹婦들도 거두지 않음이 없었네.  
 昆蟲之微尙與被 곤충과 같은 미미한 것들도 오히려 깃질을 가졌거늘  
 矧復無告吾憫獨 하물며 하소연하고 알릴 데 없는 우리 무연고자들이랴.  
 朝家設法本有意 조정에서 법을 제정함에는 본래 뜻이 있었나니  
 簽丁要使軍伍足 簽丁이란 요체가 軍伍를 충족시키고자 함이었네.  
 法行之久弊反生 법을 시행한 지 오래되니 도리어 폐단이 생겨나  
 邇來最爲生民毒 근래에는 生民들의 가장 큰 해독이 되었구나.  
 丁男有限色目多 丁男은 제한되어 있으나 色目は 많아  
 遂令搜括及兒弱 끝내 찾아내게 하니 아기에게까지 미쳤네.  
 縣官惟知畏上司 현의 관리는 오직 上司를 두려워할 줄만 알고  
 利己寧復恤民戚 자기를 이롭게 함에 어찌 백성들의 근심을 구휼하랴.  
 只存虛名混侵虐 그저 거짓이름에 온통 侵虐뿐이니



白骨之徵尤爲酷 白骨徵布는 더욱 가혹하구나.  
 八域同疾民半死 팔도 전역에 같은 병으로 백성들은 반이나 죽었으니  
 如汝幾處呼天哭 그대처럼 몇 곳에서나 하늘 부르며 통곡하고 있을 것인가.  
 吾君念此憂形言 우리 임금 이를 알고 근심을 드러내어  
 十行絲綸頻愁曲 십행 조칙 빈번히 간곡도 하였구나.  
 廟堂無策但坐視 묘당에선 대책없어 그저 좌시하고 있으니  
 已矣此法無時革 아아, 이 법은 혁파될 때 없구나.  
 爾婦且莫呼天哭 그대 아낙네여, 하늘 부르며 통곡하지 말게나.  
 呼天從來天不識 하늘 불러본들 예로부터 하늘은 몰랐다네.  
 不如早從黃泉去 일찌감치 황천 따라감만 못하구나  
 髑髏之樂樂莫樂 해골의 즐거움이 기겁지 아니한가.  
 (鄭敏僑, [軍丁歎], 續選 권1, pp. 385f.)

이 시는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시적 화자로서 시의 내용을 끌어나가는 시적 자아(poetic I)가 이 시의 본원적인 내용을 고백하는 일종의 고백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고통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부분 곧 도입부(序詞部) (a), 고통의 주인공이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부분 곧 전개부(本詞部) (b), 고통의 주인공의 하소연을 듣고 시적 자아가 그 고통을 해소해 주지 못해 한탄하는 부분 곧 결말부(結詞部) (c)가 그것이다. 우리는 a를 통해 이 시가 곧 시적 자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곧 시적 자아는 일종의 관찰자로서 전체의 이야기를 끌어가기는 하지만 그 사연의 주인공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따라서 시의 핵심적인 내용은 시적 자아의 목소리가 아닌 제삼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낸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곧 b(본사부)는 일종의 額子로서 당대의 객관적인 상황의 제시로써는 쉽게 획득하기 어려운 직접적인 호소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측면을 樂府詩라는 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으나<sup>13)</sup>

13) 朴惠淑, “形成期的 韓國樂府詩 研究”(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9, 7)에서는 이러한 시들을 紀俗樂府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이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음은 몇몇 작품의 예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고려조 이규보의 [孀婦歎], 尹汝衡의 [橡栗歌]를 위시해서 조선조 권필의 [驅車兒][切切何切切], 허균의 [老客婦怨], 洪良浩의 [流民怨] 등 사대부시인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委巷人詩人들의 작품 중에도 宋奎斌의 [戊子秋哀丐者], 朴允默의 [寡婦歎] 등의 작품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그러한 시적 양식의 문제와 결부시키기보다는 결구법이 패턴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이 패턴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시적 표현효과라는 측면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의 직접화법을 통해 드러내는 시적 효과는 곧 당시의 민중들이 겪고 있는 객관적 사실의 구체적 형상화인 것이다. 막연하고 개연적인 사실이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인물의 직접적 호소라는 형식을 통해 드러날 때, 그것은 당대 현실이 구체적 현실 속에 재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당대 현실의 전형화된 형상이 됨을 뜻한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그 해결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c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의 재확인에 머물고 만다. b를 통해 제기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면 애초에 이 문제가 시적 제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질 정도로 시대가 바뀔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갈등으로 남아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점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의미하고 따라서 c에서 시적 자아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래서 시적 자아가 제시하는 해결의 방안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에게 그 해결을 회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거나, 아예 자포자기하고 b의 고통의 주인공과 함께 同病相憐하는 감정의 淨化만을 추구하던가, 한 술 더 떠서 그 단계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극한의 상태로 비극적 인물을 몰아부치는 경우 등으로 설정된다. 어느 것이나 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심적 상태가 바탕에 깔려 있음은 공통된다.

이 작품에서 문제가 되는 기본갈등은 제목에서 보여지듯 三政의 紊亂 중에서 軍政의 폐해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그것도 지독하기 그지 없는 黃口箠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민중의 모습이 한 과부의 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결말부에서 시적 자아는 과부의 사연에 그보다 더 지독한 白骨微布의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의 길이 없으니 차라리 죽는 게 최선의 길이 아니냐는 자조적인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결사는 이 시의 작자가 중인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중인이기 때문에 사대부에 비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자포자

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의 작품들에서도 그렇게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패턴에 속하는 것이 宋奎斌의 [戊子秋哀丐者](續選 권3, pp. 485-7)인데, 이것은 농민의 유민화과정을 시로 형상화한 것이다. 앞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도입부가 설정되고, 전개부에서 고통의 주인공이 유리결식하게 되는 배경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云是東峽民	말하기를, “동쪽 골짜기에 사는 백성인데
無食離家鄉	먹을 게 없어 고향을 떠났답니다.
四月下霜蠶	사월에 서리, 우박 내리고
五月遍螟蝗	오월에 螟蝗이 크게 번졌지요.
才經搯剝餘	겨우 어렵고 어려운 고비를 지난 끝에
又逢蟲損傷	다시 벌레들의 손상을 입었지요.
始從隴上黍	이때부터 밭의 기장은
迤及水中秧	물에다 심어야 하는데
根穗皆蝕盡	뿌리와 이삭이 모두 뜯어먹혀 버렸으니
處處莽空場	곳곳에 텅빈 마당이었지요.
半歲費辛苦	반년을 바쳐 고생했음에도
逢秋却成荒	가을을 당해 도리어 황량함뿐이었습니다.
十口皆呼饑	열 식구가 모두 배고프다 소리치니
焉望有蓋藏	어찌 저장하기를 바라리오.
東家羈牛馬	동쪽 집은 소, 말을 팔고
西隣伐棗桑	서쪽 이웃은 대추나무, 뽕나무 베어냈지요.
糶期忽已迫	곡식 내다 팔 기한 홀연히 닥쳐오니
身布又遑遑	身布 또한 급하게 되었는데,
官差猛如虎	관리들은 사납기가 맹호와 같아
臨門肆搶攘	문에 이르러서는 방자히도 어지럽게 굴었습니다.
環顧一室中	방안을 두루 둘러보니
四壁惟頽牆	사방의 벽이란 게 오직 무너진 담장이었지요.
深恐遭縲紲	포승줄에 얽혀갈 게 크게 두려워
盡賣弊衣裳	헤져버린 옷들까지 다 팔아 치웠지요.
哀哀幼稚哭	불쌍한 어린것들 울면서

索飯呼爺孃	밥달라 어미, 애비 찾았지요.
安土豈非願	안락한 땅을 어찌 바라지 않을 것이며
故鄉詎可忘	고향을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瓶無一粒粟	독에는 한 낱의 곡식도 없으니
將何繼糶糴	장차 어떻게 하면 죽정이, 겨라도 이어갈 수 있으랴.
一日不再食	하루 두끼밥도 못먹으며
立地見危亡	그 자리에서 危亡함을 보나니
難於坐待死	앉아서 죽기보다 어려운 일
百計費商量	온갖 계책을 짜고 생각을 굴렸었지요.
率眷作流丐	온가족 이끌고 떠돌이거지 되고 보니
天壤何茫茫	천지는 얼마나 아득했는지.
痛哭辭故里	통곡으로 고향을 하직하고
血淚灑白楊	피눈물을 백양나무에 뿌렸답니다.
傳聞他郡邑	듣자니 다른 고을에서는
往往登豐穰	왕왕 풍년이 든다고 하던데
我土獨何辜	우리 땅은 유독 무슨 허물 있기에
毒災偏一坊	지독한 재앙이 한 곳에만 치우친단 말입니다.
地荒民四散	땅이 황폐화되니 백성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公私貽深殃	公私로 심한 재앙을 끼쳤지요.
日月雙轉轂	해와 달은 쌍으로 수레바퀴 굴러가니
流光落嚴霜	흐르는 세월은 매서운 서리 내리는구나.
既無家與食	이미 집도 밥도 없으니
半夜泣路傍	한밤중에 길가에서 울고 있답니다.
流離不定居	떠돌아 다니며 정해진 거처 없으니
溝塹任仆僮	도랑이나 골짜기 아무데서나 죽게 될테지요.”

농민의 입을 통해 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처연하고 호소력있게 형상화하여 천연의 재해라는 측면과 身布라는 인위적 재해가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결말부에서는 앞의 작품이나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유용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말았

다. 곧 救荒策은 發倉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관아의 목민관이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당위적인 면에서 수령은 뇌물로 옳은 도리를 더럽힐 것이 아니라 백성 아끼기를 자식같이 해야 할 것이라는 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밖으로부터의 비방은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sup>14)</sup> 따라서 이 해결책은 현실적이거나 제도적인 개혁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시인 자신의 심정적인 차원의 해결에 머문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昨日今日風雷吼 어제 오늘 바람불고 천둥쳐서  
 天色慘慘雪打牖 하늘은 어둑어둑 눈발은 들창문을 두들기네.  
 二月過半尙重裘 이월이 반나마 지났으나 아직 겹쳐 입은 갓옷이요  
 入地數尺冰亦厚 땅 속 몇자 깊이로 얼음 또한 두텁구나.  
 流鶯巢燕噤無聲 날아야 할 피꼬리, 깃들 제비는 입다물어 소리없고  
 錯莫山花與溪柳 뒤섞여 어지러움은 山花와 溪柳로다.  
 況聞流氓擁道周 하물며 流氓이 길에 쪽 널렀다하니  
 兒不庇弟兒失母 형은 아우를 돌보지 않고, 아이는 어미를 잃었다네.  
 老父對食不敢餐 늙은이 음식을 대해도 차마 먹지 못하고  
 仰屋長吁心鼻酸 지붕 쳐다보며 탄식함에 마음과 코가 시큰하네.  
 生平誤讀古書詩 평생 古書, 시를 잘못 읽고  
 不解憂身解憂時 내 몸 근심 못풀면서 시대의 근심 푸는구나.  
 把筆觀縷千餘言 붓을 잡아 주절주절 천여 마디 쓴다지만  
 腐儒經綸一何痴 썩은 선비의 경륜이란 하나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欲向廊廟干所學 廟堂에 나아가 배운 바를 펼치고 싶지만  
 騎馬出門迷所之 말타고 문 나서서 갈 곳 잃어 버렸네.  
 安得樽酒飲無何 어떻게 술이라도 실컷 얻어 마시고  
 醉倒冥顛睡不知 정신없이 취해 거꾸러져 잠들어 몰랐으면.

(鄭來僑, 『風雪歎』, 續選 권2, p. 429.)

14) “老我聞此言 不覺涕盈眶 天心爲至公 好生本無疆 古今有災沴 流行本無常 儉歲何代無 救荒賴發倉 立視不拯溺 焉用彼黃堂 黃堂皆如此 黎民安所望 牧御非小可 何不揀否臧 若究災與祥 必先理陰陽 百里亦君恩 慎勿汚賄臧 愛民如愛子 何恤外至謗 嘆息復嘆息 何以濟孔穰 靜念無他道 莫如得人昌”(宋奎斌, 『戊子秋哀丐者』, 續選 권3, pp. 485-7.)

이 시 또한 風雪이 몰아치는 차가운 날씨 속에서 流氓이 길에 늘어서서 혈  
 1조차 서로 돌보지 못하는 극한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의 방안을 모색  
 1나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는 시적 자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고  
 1의 주인공의 사정을 직접화법이 아닌 간접화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1상의 참혹함은 앞의 시들과 대차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시적 자아의 입  
 1에서는 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지독한 혐오  
 1 속에서 술이라는 忘憂物을 통해 마무리짓는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하층  
 1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무력함을 반성하고 그 아픔을 통감하고 있는 것이  
 1. 이상의 시들이 당대 하층민의 전형적인 고난상을 일종의 견문을 통한 관  
 1자적 시각에서 형상화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그것이 견문의  
 1원이 아닌 개인적 경험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도 있다.

京洛無衣食	서울에는 먹고 입을 게 없어
江湖買薄田	江湖에 척박한 밭을 샀다오.
未能送窮鬼	窮鬼를 떨치지도 못하고
仍復值荒年	인하여 다시 흉년을 당하였네.
種稻秋無穫	벼를 심었으나 가을에 거둔 게 없으니
徵租夜不眠	세금 독촉에 밤에 잠자지 못한다오.
長貧元有命	오랜 가난은 본래 타고난 운명이라 여기나니
隨處且安天	곳에 따라 그저 편안히 마음 먹을 수밖에.

(鄭敏僑, [奇伯氏], 續選 권1, p. 387)

물론 정도에 있어서는 앞의 시들과 현격한 차이가 나지만, 흉년이라는 자연  
 1 상황과 관의 횡포라는 인위적 상황을 형상화하되 서술의 시각은 완전히  
 1 다르다. 그러나 다함께 드러나는 일종의 자포자기적 귀결은 당대 농민들의  
 1 참한 삶의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살았던 위항인들의 사회인식  
 1 실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상의 시들이 시상 전개에 시적 자아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일정한 정  
 1까지 개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다음에 언급할 시들은 눈에 보이  
 1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쓴 것들이라 하겠는데, 이것들은 앞서와

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拾穗山田薄暮歸 山田에서 이삭 주워 저물녘에 돌아오니  
 穉兒匍匐啼柴扉 어린애는 엉금엉금 사립문에 울고 있네.  
 吹火濕薪煙不起 젖은 나무에 불붙이니 연기는 고사하고  
 夕餐遲到鷄鳴時 저녁 찬이 오를 때는 첫닭 울 무렵이네.  
 (劉光澤, [貧家女], 續選 권1, p.400.)

擲梭愁共織 북을 던지고 시름 섞어 베를 짜나  
 機下草蟲鳴 베틀 아래 풀벌레 운다.  
 赤子新番布 갓난 아이는番禺이 된 微布가 새롭고,  
 良人老正兵 남편은 正兵으로 늙었구나.  
 窮冬無短褐 겨울 다하도록 짧은 무명옷 하나 없고  
 長夜有寒檠 긴긴 밤에 차가운 등불 켜 있네.  
 淚逐絲絲落 눈물이 실실이 좇아 떨어지니  
 誰知此苦情 누가 이 괴로운 情을 알아주리오.  
 (崔德衍, [織女歎], 續選 권2, pp.433f.)

이 시들은 다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로서, 가난한 농촌 아낙이 빈곤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후자는 밤늦도록 베를 짜는 아낙의 어려운 처지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사연이 갓난 아이의 징포(黃口簽丁)와 늙은 남편의 군포를 위한 것이다. 이 작품은 노동하는 여인의 고통을 부유한 집 또는 권세가의 호사한 생활과 대비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종의 계열을 이루고 있다. 곧 崔致遠(857-?)의 [江南女]로부터 시작하여 李穡(1318-1396)의 [蠶婦詞], [蠶婦], 徐居正(1420-1488)의 [織婦行], 許楚姬(1563-1589)의 [貧女吟], 申光洙(1712-1775)의 [潛女歌], 趙秀三의 [採桑女] 등의 작품이 그것이다. 『풍요속선』에도 金圭의 [行路難](一作 貧女歎)이 실려 있는 바, 이것은 東家の 한 처녀가 가난해서 시집도 가지 못하고 해마다 新婦 옷을 짓는 품팔이 노릇을 하며 어려운 삶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다음 결론적으로,

(전략) 事事漸艱難 일마다 점차 어렵게만 되어가니  
 辛苦知奈何 고생함을 안들 어찌하랴.  
 古來貧家有處女 옛부터 가난한 집에 처녀 있으면  
 每令年貌易蹉跎 년년이 모양새 일그러지게 해온 것을.  
 (金圭, [行路難] (-一作 貧女歎), 續選 권4, pp. 576f.)

이라고 하여, 그 참상을 알되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가무리짓고 있다. 따라서 이런 작품은 위항인들의 고유한 문학세계라 하기 어렵지만, 당대 민중들의 질곡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큰 흐름의 일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仰視峰頂田 봉우리 꼭대기 밭을 올려다보니  
 尛尛火耕人 땀을 뻘뻘 흘리며 화전해 경작하는 사람이로다.  
 雙犂並駕犁 두마리 소에 쟁기를 매어  
 往廻凡幾巡 왕복하기 무릇 몇 순회이던가.  
 遇岐牛能跪 울퉁불퉁한 곳에서는 소가 무릎꿇을 줄 알고  
 隨勢膝屈伸 地勢에 따라 무릎을 굽히고 펴는구나.  
 跟後婦若姑 발꿈치 뒤의 며느리와 시어미는  
 跬步互舉趾 반걸음 디딜 틈에서도 서로 밭을 돌구어주네.  
 一畦踏三窠 한 이랑에 세번씩 다져밟아  
 勻灰投綿子 재를 고루 퍼놓고는 면화씨를 뿌리네.  
 之農勤如茲 이 농사지음에 부지런하기 이와 같으나  
 爲生何閔惻 살아가기는 어찌 그렇게 근심과 고달픔뿐인지.  
 澗口疑荒塚 골짜기 시내 입구는 거친 무덤같은데  
 狗吠始認屋 개 짖는 소리 듣고서야 비로소 집인 줄 알겠구나.  
 環堵會不扉 둘러 친 담장엔 애초부터 문은 없고  
 蓬蒿拄扉徑 쭉과 명아주는 날다람쥐 길을 버려주네.  
 家中無長物 집안에 쓸만한 물건은 없어  
 徒壁如懸磬 그저 벽만이 경쇠를 건듯이 텅비어 있네.  
 赤童亦樵蘇 벌거벗은 아이 또한 나무베고 풀깎으니  
 巢穴等棄捐 짐승의 거처같은 집은 마치 버려진 것 같네.



朝與林鳥散	아침에는 숲의 새와 함께 흩어졌다가
暮同野鹿眠	저물면 들판의 사슴과 함께 잠드는구나.
無慮慢藏失	곳간 단속 않아도 잃을 염려 없으니
奚有盜竊憂	어찌 도적에게 도둑질하라고 가르친다는 말 들을 근심있으랴.
指點口自語	손가락질하며 증얼거리다 보니
咄咄已嶺頭	어느새 뜻밖에 고개마루 다달았네.
沒跗前秋葉	발등을 뒤덮는 것은 지난 가을의 낙엽이요,
揜髻翳日杪	상투에 걸기적거리는 것은 해 가리는 나무가지로다.
旒旒照潤英	무성한 것은 골짜기 물에 비친 초목이요,
嚶嚶悅性鳥	울며 지저귀는 것은 素性을 기뻐하는 새로구나.
谷勢轉屢改	골짜기의 기세가 몇번 바뀌더니
雲杉隱奔峭	무성하던 삼나무는 달리는 가파른 봉우리에 숨어버리네.
只憐馬力短	그저 말의 힘이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다보니
未覺峽路東	골짜기 길 좁아짐을 깨닫지 못하였네.
茲何歎行役	이에 어찌 行役을 한탄하랴.
且慰多創目	또한 創目 많음을 위무하노랴.

(李受益, [朝發黃州入上山嶺], 續選 권4, pp. 538f.)

깊은 산 속에서 화전해서 살아가는 한 가족의 비참한 정황을 본 대로 기술한 시이다. 어려운 노동의 과정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생활의 실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특정한 한 개인의 어려운 생활모습을 그리고 있다기보다는 아무리 노력해도 타개할 수 없는 일종의 벽이 이와같은 시를 통해 그려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풍요속선』의 시를 대상으로 하여, 위항인의 시에 당대 민중적 삶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을 살펴보았다. 막연히 어떤 개념에 입각해서 그 시들의 성격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추정하기보다는 실제 작품 속에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가를 살피는 것이 실상에 접근하는 바른 길이라는

전제하에서, 간략히 살펴본 결과 위항인은 나름대로 당대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충실하게 드러내려고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항문학을 다루면서 늘상 그들의 문학론이나 사대부 문인들이 그들의 문학에 대해 언급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같이 그들은 그들의 시를 일종의 사회적 거울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측면, 곧 반영론적인 입장에서 시를 창작하고 있었던 것을 『풍요속선』의 시들을 살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앞서 논의한 바를 간략히 요약하여 이 글을 마무리짓고자 한다. 우선 그들은 자기자신을 인식함에 있어 화폐경제의 일반화와 함께 등장하는 각박한 현실에 대한 상당한 혐오감을 바탕으로 깔고서, 그 현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 결과 그들은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궁핍한 존재로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타개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의식의 차원에서 군자임을 자부하면서 자기 자신의 온전함을 보전하는 데 만족하거나 과거회귀적인 사고에 젖은 일종의 패배주의적 성향이 짙은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같은 모습의 저변에는 신분적 질곡이라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벽이 존재하고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를 버림 받은 존재로 치부하면서 어차피 넘지 못할 벽일 바에야 현실 속에서 그것을 초극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의식의 차원에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일종의 현실 도피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의 제반 질곡 가운데서도 그나마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문학이었고, 그들은 문학을 통해 나름의 암울한 감정을 발산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문학세계에서마저도 사회의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측면을 직설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단편적인 감상이나 당대 일상인 곧 민중의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자기인식에 바탕해서, 그들은 당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 곧 병폐적 현상을 시로 형상화함에 있어 문제의 핵심을 빈부갈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는 바탕에는 화폐경제의 활성화라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깔려 있고 이로 인한 빈부의 격차, 상인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에 있는 농민들의 질곡이 부각된다. 특히 농민들은 자연적 재해와 더불어 삼정의 문란으로 야기되는 인위적 재해까지 겹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실상이 심각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실천적인 방안의 제시에까지 이

르지 못하고 복고적인 감상을 드러내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대 하층민 특히 농민들의 생활상의 질곡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들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 당대 사회의 부조리한 측면을 형상화한 그들의 시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전반적 문제를 개념적으로 파악함에 있어 구체적 현장감을 획득하지 못함으로 인해 일종의 공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들에 이르러서는 그 공허감이 극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적 자아는 실제의 경험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행이나 견문을 통해 인지한 사연을 시로 재현하면서, 그 속에 실제의 현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물의 사연을 직접화법을 통해 토로하거나 간접화법으로 전화시키면서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도 시 속에서 전개되는 서사적 맥락 속에 시인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속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객관적 관찰자의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나 현장에 바탕함으로써 당대 민중의 비참한 실상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작품들을 통해서 황구침정, 백골길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의 실상이 형상화되고, 농민의 유민화현상, 궁핍한 농촌 아낙의 고통, 시집도 가지 못하고 벼들에 얽매여 있는 織婦의 참상, 화전민의 곤핍상 등이 극명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풍요속선』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민중적 삶의 실상은 그것이 비록 실천적인 면에서의 방향제시의 차원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당대적인 삶의 모습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항인의 자기인식에서 드러난 위항인의 의식이 중인계층 일반의 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실제로 조선후기 중인들의 부조리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는 자료들도 적잖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문학활동에 참여했던 위항문인들의 의식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